

I .1994년 이후 일본 장관, 수상 등의 사과 발언 내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계 기
일본 衆議院 不戰 決議	○ 세계근대사에 있어서 수많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과거 행한 행위와 타국인 특히 아시아 諸國民에 안겨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	95.6.9 중의원 채택 - 참의원은 不採擇
무라야마 총리	○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한시기에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 ○ 역사의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	95.8.15 戰後 50주년 특별담화
무라야마 총리	○ 서로가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는 것이 당연	95.11.18 오사카 APEC 정상회담
무라야마 총리	○ 저는 8월 15일 담화에서 우리나라의 멀지않은 과거에 있어서의 국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나라가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명하였지만 여기서 다시한번 지금 말한 것과 같은 한국병합 조약에 의한 식민지지배하에서 한반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건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준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뜻을 표명합니다.	95.11.14자 김영삼 대통령 앞 친서
하시모토 총리	○ 과거로부터의 무거운 짐과 미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96.1.22 국회 개원 시정 연설
하시모토 총리	○ 과거로부터의 무거운 짐과 미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 창씨개명, 군대위안부 사과표명	96.6.23 제주 정상회담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하시모토 총리	○ 6월 제주도 회담시의 일본 정부의 입장 재천명 ○ 카지야마 관방장관의 군대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	97.1.25 벵푸 정상회담
아키히토 천황	○ 밀접한 교류의 역사가 있는 반면,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음	98.10.7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천황만찬사
오부치 총리	○ 양국관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일정기간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지배에 의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음	98.10.8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II.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 현황

1. 사할린 한인현황

- 일제 말기, 대부분 징용 노동자로 강제 연행되었으며, 종전 당시 약 4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 잔류
- 현재까지 사할린에는 러시아籍 31,500명, 無國籍 4,000명, 북한籍 500명 등 약 36,000명의 한인이 거주
- 현재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 1,100여명, 기타 유·무연고 동포 270여명이 영주 귀국

2. 일시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사업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을 통한 사할린 한인 귀환 노력은 구 소련의 비협조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80년대 들어 일본에서의 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시작
- 1988년 서울올림픽 및 한·소 관계개선을 계기로 한·일 적십자사를 통해 민간시설 등으로의 영주귀국 실시
 - 무연고 동포 220여명이 「사랑의 집」(광림교회), 「대창양로원」(경북 고령) 입소
 - 유연고 동포 50여명 개별 영주귀국
- 1989.9월이래 「일시모국방문사업」으로 12,000여명의 모국방문 실현(일측이 연간 약1억2천만엔 지원)
 - 89.9-95.3월간 한인1세 전원 모국방문 실현, 현재 재방문 실시중
 - 95.11월이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지원으로 부모사망 2세의 모국방문 실시중(현재까지 500여명 방문)

3.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

가. 경 위

- 94.3월 및 7월 두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기에 마련키로 합의
- 그 이후 한·일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서 「100명 수용 요양원」 및 「500세대 아파트」 건립 추진 합의(94.9)
 - 일측은 건설경비(32.3억엔) 지원, 우리측은 건립부지 제공
 - 아파트는 30년간 임대 형식
 - 「시범사업」 대상자는 1945.8.15이전 사할린 이주 및 출생자
 - 우선 현재 사할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의 시행 주체는 한국과 일본의 적십자사로 구성된 「공동사업체」
- 「100세대 조기귀국사업」(97.12-98.9)으로 서울근교 임대아파트(서울시 등촌동,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원미구)에 82세대 164명 입주
 - 「재외동포재단」이 임대보증금 지원

나. 추진 현황

(1) 요양원(「사할린 한인 복지회관」)

- 98.3월 인천 연수구 韓赤 부지에 착공하여 99.2월 완공
 -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1개동(27실) 건립
- 1999.3.2 개관식을 개최, 현재 사할린 한인 94명 입소중
 - 지체 부자유, 독신 고령자 위주

(2) 사할린 한인 아파트(489세대)

- 97.7월 안산시 고잔지구에 착공, 99.12.28 완공
 - 22평(전용 15평) 규모, 8개동 489호로 구성
 - 부대 복리시설로 복지관, 게이트볼장 조성

- 2000.2-5월간 입주(총 489세대 960여명)
 - 사할린으로부터 영주귀국하는 408세대 809여명
 - 「100가구 조기귀국사업」에 따라 서울근교의 임대아파트(서울, 인천, 부천)에 기영주귀국해 있는 81세대 151명
 - ※ 2000.2.2(수) 제1진이 도착, 6월말 현재 488세대 입주
 - 입주후 7명 사망
- 2000.2.25 「입주식」 개최
 - 한·일·러 정부, 사할린 주정부, 적십자 관계자 등 참석

(3) 서울 근교 임대 아파트(82세대)

- 「100세대 조기 귀국사업」으로 귀국했던 사할린 한인은 안산 아파트로 이주, 현재 공가 상태
- 사할린 한인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주택공사와 협의, 향후로도 동 임대아파트 82세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

다. 영주귀국자에 대한 지원

- 안산 및 서울 근교 아파트 입주 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 실시
 - 영주귀국자 전원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매월 1인당 약 15만원) 지급 및 의료보험 혜택
 - 영주귀국자들의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세대당 15만원의 특별 생계비 지원
 - 사망시 대전 소재 「국립 망향의 동산」에 납골 방식 무료 안장
 - 기타 지자체 및 한적 등을 통한 봉사활동 추진
- 인천 요양원 입주자에 대해서는 주로 요양원을 통한 지원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8억원 정도를 요양원 운영비로 지원

4. 사할린 잔류 한인 지원사업

가.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 건립사업

(1) 경 위

- 98.11 가고시마 개최 한·일 외무장관 회담시 「한인 문화센터」 건립에 합의
- 99.3 일본 정부는 동 사업경비 4억 9,800만엔을 공동사업체에 거출
 - 99.1 한·일 과장급 협의회 일측 추진안 제시

(2) 추진 현황

- 일측은 현재 건물부지 물색 및 건립후 소유권 문제 등 검토중
 - 건립부지 대상지를 사할린 주정부와 한인단체 등을 통해 몇건 소개받은 상태
 - 건립후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하기 위해 러시아 관련 법률 검토중

나. 여타 지원사업

- 사할린 한인들은 「문화센터」이외에 아파트 및 노인 의료·복지 시설 건립, 한인신문·방송사 운영지원 등을 요구중

III. 국내 원폭피해자 일측 지원현황

- 90.5 한·일 정상회담시 일본 정부는 재한 원폭피해자를 위한 건강복지 센터 건립 및 치료·진단비로 40억엔 지원 약속
 - 일본측은 91.11월 17억엔, 93.2월 23억엔 송금(한국 적십자사에서 수령)
 - 현재 '韓赤'내 “원폭복지사업소”을 설치 보사부의 감독하에 동 지원금 관리중